

# 수수꽃다리

LANDSCAPIN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물푸레나무과
- ▶ 학명 : *Syringa dilatata*
- ▶ 영명 : Dilatata Lilac
- ▶ 한명 : 廣葉野丁香
- ▶ 일명 : ひろははしどい



▲ 수수꽃다리



대학생들의 수목학 강의나 숲 해설가 양성 교육에 강의의 하러 갔을 때 수수꽃다리를 아는가?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사 람 정답을 바로 말하는 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라일락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대응 한다. 수수꽃다리 속(屬)에 속하는 나무들은 한자 이름 끝에 모두 정향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데 수수꽃다리를 광엽야정향(廣葉野丁香), 꽃 개회나무를 화야정향(花野丁香), 정향나무는 조선야정향(朝鮮野丁香)이라 하듯이 수수꽃다리의 모든 종류에는 향기가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향기가 좋아 꽃이 피면 꽃을 따서 말렸다가 향낭(香囊)에 넣어 여성의 핸드백에 넣어 향기를 즐기기도 하고 많은 꽃을 채취하였을 때는 침실머리 만에 두어 향기를 즐기기도 한다.

## 1.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북부 지방의 석회암 지대 산기슭, 산골짜기의 양



▲ 수수꽃다리

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낙엽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높이 4m 정도 자라며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수형을 이룬다. 수직적으로는 100~1,000m에 분포한다. 추위에 강하고 대기 오염이나 병충해에도 강하며 토양은 수분이 있는 사질양토를 좋아하고 맹아력이 강하고 이식도 잘 되는 편이다.

## 2. 형태적 특성

잎은 마주나며 길이 5~12cm로서 다소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넓은 난형 또는 난형이며 예두 또는 점첨두이고 절저 또는 아심장저로서 거치가 없다. 잎의 양면에 털이 없으며 길이 7~12cm이고 전년지끝에 원추화서가 달리며 연한 자주색의 꽃이 4~5월에 피고 향기가 강하다. 화축에 선상의 돌기가 있다. 화관통은 길이 12~20mm이며 끝부분이 4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로서 타원형 침두이고 길이 9~15mm로서 9월에 익는다. 일반적으로 라일락으로 부르는 라일락은 꽃이 대형이고 향기가 짙게 나는 것을 라일라(S.

*vulgaris*)라고 하며 정원에 많이 식재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저녁 식사 후 공원을 산책할 때 은은한 향기를 쫓아 가 보면 어김없이 수수꽃다리를 찾아 가게 된다. 공원의 큰 나무 아래 수수꽃다리를 식재하게 되면 상층목의 잎이 무성하기 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일찍 결실하게 되는 수수꽃다리는 꽃의 색깔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서 공원이나 가정 정원에 식재하면 좋다.

## 4. 번식법

몇 그루의 나무를 얻을려면 어미나무 아래에서 많은 어린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나누기를 하여도 좋고 종자 번식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많은 묘목을 얻을 수 있고 작년에 자란 가지 를 꺾꽂이 하여도 쉽게 묘목을 얻을 수 있다.

## 5. 그 밖의 용도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가 많아서 향수의 원료로 사용하고 서양요리에도 사용하면 그윽한 향을 즐길 수도 있다. 🌿

